

청소년 학대의 실태 및 대응방식 연구*

양 심 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학대를 청소년 보호법(1999)의 규정에 따른 유해환경의 생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포괄적인 학대 및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모형을 시도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일반 및 보호청소년 618명에게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학대의 유형별 실태에서 청소년들의 46.5%가 경한 신체적 학대를, 35.9%가 심한 신체적 학대를, 59.5%가 경한 정서적 학대를, 24.9%가 심한 정서적 학대를, 19.9%가 경한 방임을, 35.7%가 심한 방임을, 29.0%가 경한 성적학대를, 8.7%가 심한 성적 학대를 각각 경험하였다. 가해자로서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교 교사와 어머니, 정서적 학대는 어머니와 선배, 성적 학대는 이웃에 의해 주로 발생되었다. 2) 학대의 발생요인들로서 성, 부모와의 관계는 학대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연령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집단, 가족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3) 학대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정서적인 반응으로서는 반성 혹은 복수를 원하였으며 행동적으로는 그냥 참는 경우가 많았다. 학대를 당한 친구에게는 얘기를 들어주는 대응방식을 취했으며 도움을 주요 대상을 학교교사로 인식하였다. 도움요청 후 한동안 위로가 된 경우가 많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많았다. 4) 학대발생환경들과 정서적 반응의 대처방식에서 신체적 학대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었으며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경우 가해환경에 따라 다른 정서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서적 반응은 성별, 연령집단, 사회심리적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I. 서론

청소년보호법(1999)에서는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전한 인격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환경의 한 범주로 폭력이나 학대¹⁾를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학대의 유해성에 관하여 많은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를 낮추며 비행이나 일탈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Curtis, 1963; Lewis

* 본 논문은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1999)의 연구비 후원으로 조사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BK 21 사회복지학과 연구교수

1) 일반적으로 폭력과 학대를 명확히 구분짓기는 어려우며 학대를 폭력의 하위범주에 포함시키는 관점과 학대를 신체적 폭력과 미신체적 폭력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보는 관점의 두 흐름이 있다(박근혜, 199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유해환경이라는 공통된 전제하에 청소년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t al., 1989; Widom, 1989; 김민정, 1998; 김유숙, 1998; 주영희, 1984). 나아가 청소년 시기에 겪은 학대의 경험을 모방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이 각인화되어 성장후 학대세습화의 반복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 학대 문제는 생애 발달시기에 미치는 심각한 경험으로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학대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아직 미흡하며 그동안 학대에 관한 연구들이 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에 집중되어 왔다(김광일·고복자, 1986; 고복자, 1992; 한정혜, 1998). 즉 1980년대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현상에 대한 현황 파악을 비롯하여 학대의 개념적 접근의 연구, 학대의 원인과 결과, 학대의 예방 및 대책방안 모색 등의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청소년 인구층에 관한 학대연구는 몇몇 조사가 있을 뿐이다. 대신 청소년의 폭력에 대하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 폭력의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학교폭력, 성폭력등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내에서의 총괄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해 위협이 되는 학대상황 혹은 폭력상황에 대한 이해는 가정, 학교, 이웃사회 등의 생활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포괄적(comprehensive) 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생태적 환경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전반적인 학대 현상에 대한 이해를 꾀하는 탐색적(exploratory) 성격을 갖는다.

둘째, 청소년에 관한 학대의 범위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이라는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며 학대에 관련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대의 발생요인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하고자 한다.

셋째, 학대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에게 학대 발생 후 대응방식들에 관한 경험들을 직접 알아봄으로써 청소년 학대의 예방과 치료에서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학대 논의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학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채 청소년의 인격적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로 포괄하고 있다. 대신 청소년 폭력에 관하여 “청소년폭력이란 폭력을 통해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폭력이 무엇이며 어떠한 행위가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²⁾.

한편 청소년 학대의 개념에 대하여 이러한 법적 규정의 미비성을 차치하고서라도 다른 청소년 관련 문헌에서의 논의조차 찾기 어렵다. 그 이유로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힘, 체중, 신장, 연령으로 인하여 학대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과 학대를 피하거나 스스로를 지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작용되어 청소년 학대의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고 보인다(Fisher, Berdie, Cook & Day, 1980). 그러나 실제 조사의 내용들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즉 청소년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적 학대의 빈도는 연령증가에서 감소할지라도 심한 학대는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나타났으며(김재엽, 1998), 학대에 대한 반응에서도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보다 반사회적 행동 등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어 심한 반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Cutis, 1963; Lewis et al., 1989). 결국 청소년기의 독특성을 고려한 학대문제의 활발한 논의와 체계적 실증조사들의 축적이 학대의 개념 규정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연구가 진척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법적 실효성까지 이룩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적 원용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의 예로서 Gil(1971)의 경우, 아동학대를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

2) 폭력의 포괄적 개념을 소개하던 Olweus는 다양한 폭력유형을 강조하며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에의 노출을 강조하면서 폭력의 유형으로 위협, 조롱, 때림,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이춘화, 2000: 5). 또한 최자은(1998)은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본 뒤 폭력에 대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또는 괴롭힘)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내리기도 하였다(최자은, 1998: 8).

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방임 상태, 그리고 개인이나 제도, 사회의 행위나 태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아동의 인권과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방임을 모두 포괄하며 가정내에서의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학대 뿐 아니라 가정외의 개인에 의한 학대나 사회적, 제도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학대까지도 포함한 것이다. 또한 Fontana(1971)는 아동학대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동에게 잠재되어 있는 발달 능력이 지체되거나 억압되는 모든 상황을 정서적, 물리적 요구 부족과 같은 소극적 행동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구타 행동과 같은 적극적 행동으로 보고 이 모두를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국내의 이소희(1988)는 아동의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가족, 사회 등 주변환경과의 역기능적인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아동 학대 개념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위의 정의들은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가 이룩되지 못할 때 아동의 잠재능력과 복지가 위협받는다 고 보며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적합성(fitness)³⁾을 목표로 상정하고 아동학대는 부적절한 아동처우와 양육의 한 극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 결과 아동학대의 영역도 적극적인 학대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⁴⁾을 포함하고 아동의 발달 전 영역에 관련된다. 최근 시행된 아동복지법(2000) 제2조에서도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저해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을 쫓아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유기, 방임 등의 광범위한 범주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대에 대한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흥미롭게도 폭력의 개념에서도 강조되어 일상 생활 내에서의 폭력은 폭력발생이 중시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에 대하여 “학생이 학교 안이나 밖에서 일상적 생활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당하는 유형/무형의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의 자료집에서도 학생들이 학급이나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폭력 뿐만 아니라 가정

3) 생활환경적 강조는 아동학대에서 주요한 개념이다. 미국의 아동학대에방협회에서는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하여 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생활환경과 아동이 처한 실제 환경간에 발생하는 격차와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장인협 외, 1999: 388). 즉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누려야 할 생활환경과의 격차가 학대라고 규정될 때 생태학적 개념이 강조된 것이다.

4) 방임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학대 기준 및 수용도에 관한 태도조사 결과, 매우 높은 비율로 행용될 수 없는 학대의 유형으로 간주되었다(안동현, 1994).

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들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 안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동학대와 가정 폭력 등 모든 폭력을 포함한다(김준호, 1996).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이러한 확장된 개념정의는 학교라는 장소를 명시하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모든 범위의 폭력행위를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오히려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가정, 학교 나아가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시사함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⁵⁾.

이렇듯 학대나 폭력의 개념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생활환경내에서의 보호는 청소년보호법에서 논의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보다 폭넓은 최근의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하에서 유해환경의 개념은 1990년 이전에는 대중매체의 유해성과 향락업소 중심의 물리적 환경의 유해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991년 이후의 논의들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되고 있다(양윤선, 1999). 유해환경에 대한 다양한 견해 가운데 생태학적 견해는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 내지 침해함으로써 건전교육을 방해하는 광범위한 생활환경을 강조한다(임형진, 1991; 260). 청소년 학대의 개념도 청소년을 둘러싼 포괄적인 환경적 맥락하에서 건전한 인격성장을 최대한 꾀함을 목표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학대의 논의를 아동학대를 통하여 학대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점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의 불균형적 파괴 성향⁶⁾은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의 단계에서의 정서적 불안정, 자아의 미형성으로 인한 혼란과 아노미가 청소년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사회성 및 대인관계의 사회환경적 변화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생활세계내에서 학대를 통하여 오히려 소외를 경험함으로써 비인격적 생활양식을 구축할 경우,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5) 폭력과 학대의 유해환경적 개념의 차별성을 논의한다면 폭력은 보다 부정적 의도가 결과로서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되어야 하는 소극적인 차원(protection from violence)으로서, 학대는 보다 발달적 보호차원이 강조되는 적극적인 책임성의 접근(protection for development)으로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폭력에 관한 개념은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공직성과 비교되었다(Berkowitz, 1974). 이에 따라 폭력을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규정할 때 청소년에게 폭력이라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극적인 보호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학대는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영역의 적절한 이동처우, 혹은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적 수준의 목표 추구의 실제화를 강조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청소년폭력이란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리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육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렸다(이민희, 이명숙, 정희숙, 이춘화, 1998: 51). 이는 청소년 폭력의 가해자가 청소년으로서 폭력 유발요인을 성장과정의 특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자신에 대한 조절기제를 다른 청소년에의 부적절한 행동양식인 동료에의 학대로 표현될 수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왕따 등 최근의 사회현상에서 청소년 자신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 경험들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발달상의 상황적 이해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범위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라는 아동학대의 규정이 청소년 학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점을 지적하기에 이른다⁷⁾. 따라서 청소년 학대는 아동학대가 전제하는 양육적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 청소년기라는 인간발달적 독특성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처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적 경험을 반영하는 학대 설정 기반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선행 조사연구 고찰

앞서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드물며 아동학대의 측면에서 요보호 청소년이나 소아과 진료의를 통해 학대에 노출된 일부 집단이 주요 조사대상으로 연구되어 왔었다. 따라서 청소년 학대에 관한 연구는 드물며 청소년 폭력에 관한 조사가 주로 논의될 것이다.

우선 한경혜(1998)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가정내 폭력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를 하였다. 가정내 폭력행동을 가해자에 따라 자녀, 부모, 형제로 나누고 학대의 종류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얼마나 발생했는 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 1,451명 가운데 21.3%가 아버지로부터 체벌이나 가벼운 폭력 혹은 심한 폭력 중 한가지 폭력을 적어도 1회 이상 당했으며, 어머니로부터는 약 19%의 청소년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5%이었으며 응답한 청소년의 23%가 형제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이들 가정내의 폭력행동들은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에 관한 학대의 다른 조사로서 김재엽(1998)은 전국의 534명의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내의 폭력을 신체적, 언어적 폭력으로 세분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59.1%가 아버지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54.5%가 신체적 폭력을 각각 경험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는 69.9%가 언어적 폭력을, 83.9%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 폭력 실태에 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1991년부터 1992년

7) 유사하게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학교주변폭력의 정의에서도 폭력 가해자의 '누군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동료학생, 선배, 이는 사람, 및 전혀 모르는 사람등으로 폭넓게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의 상담 총 2500건을 집계한 결과, 전체 상담 중 28.5%의 아동(331건)이 성폭력을 경험하였고, 청소년의 경우 피상담자의 19.5%(226건)가 성폭력을 호소함으로써 대상 연령층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성학대의 희생자임을 나타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2). 그밖에 의료적 보고서를 통하여 홍강의를 비롯한 조사팀은 7,055명의 일차진료의를 대상으로 성학대 피해자들을 추적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한 1,205명의 진료의들은 15세 이하 아동 157명(13.0%)이 친족내 성학대를, 641명(53.2%)이 가정의 성학대를 당하였음을 발견하였다(홍강의, 강병구,곽영숙, 1998a, 1998b). 이러한 성학대 조사들은 의료에 의뢰된 보고에 의한 피해집단으로서 전체에의 일반화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력현상을 살펴본 청소년대화의광장 실태조사(1996)는 폭력을 신체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으로 나누어 청소년 1,469명(초등학교 5-6학년, 중2-고2)에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1년동안 56.8%, 58.3%의 청소년들이 각각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교사(31.8%), 어머니(15.1%), 아버지(10.1%)로부터 경험하였다. 또한 친구와 선배에게서 폭력을 당한 경험은 각각 9.8%와 9.5%였으며 교내의 불량배 및 모르는 학생(0.9%), 기타(1.2%)를 고려하면 최소 10%이상 최대 30% 내외의 학생들이 한번 이상 악성 폭행에 시달렸다고 볼 수 있다.

최자은(1998)의 조사는 일반 중학생 202명에게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학교폭력 가해적인 행동간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의 태도요인을 4차원으로 나누었다. 즉 가정에서 부모집단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행동, 학교에서의 교사집단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행동, 친구집단에서의 학교폭력피해경험, 대중매체에서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행동들과 폭력행동간의 관계를 살핀 결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교사, 친구집단, 대중매체를 통해 폭력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은 폭력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폭력에 대한 조사(2000)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폭력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하에 있는 청소년들(중학교이상) 512명을 대상으로 폭력비행의 실태 및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별화된 처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행위를 하는 양면적 경험에 대한 조사들(표갑수, 1996; 최연진, 1996; 염영옥, 1998; 김준호외, 2000)도 행하여졌다.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각 조사들은 청소년에 대한 학대나 폭력 영역들이 부분적(신체적, 언어적 영역, 혹은 성적 학대)으로 적용되었으며 따라서 폭넓은 학대의 범위규정에 기초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학대나 폭력이 누구

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 발생했는지의 상황과 청소년의 성, 연령, 가족스트레스, 사회심리적 태도등 개별적 특성에 따른 학대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상세히 시도되지 않은 채 폭력이나 학대의 결과에 치중되어 왔다. 아울러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인 청소년들이 학대를 경험하였을 때의 구체적인 대처방식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연구모형

위의 선행연구의 검토를 기초로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청소년 학대의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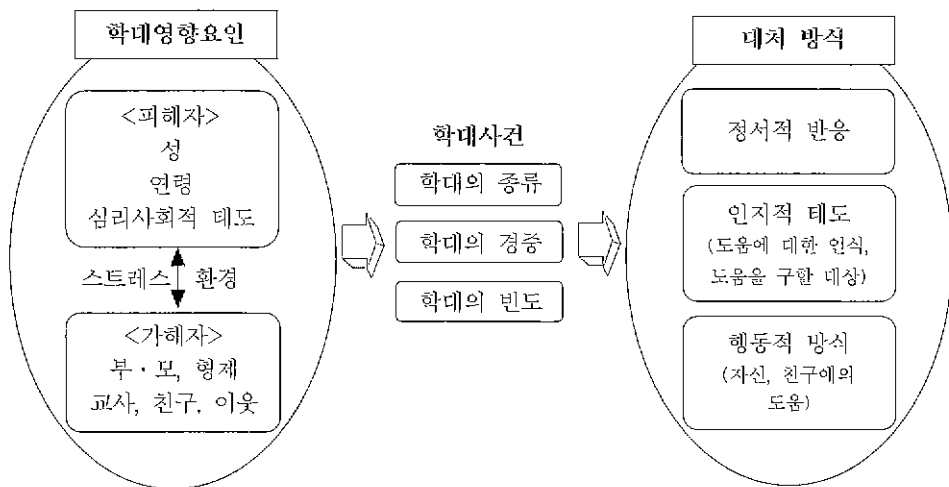


그림 1 : 학대발생과정 및 대처방식 연구모형

그림 1에서 지적하고 있듯 청소년의 학대 및 대처방식의 이해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영향요인과 실제 발생한 학대사건, 그리고 학대발생후 개별 청소년들의 대처방식의 세 차원이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피해 청소년의 특성인 성, 연령, 심리사회적 태도들이 가해자(부, 모, 친척, 교사, 친구, 이웃등)의 종류와 상호관련되며 나이가 청소년의 주변환경의 스트레스상황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학대사건에 있어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의 4종류가 포함되며 학대의 정도가 심한지와 경한 지, 한 달에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대가 발생한 후 개별적인 대처방식으로 정서적 반응, 자신과 친구에 대한 행동

적 방식, 도움요청에 대한 인지적 태도등이 고려된다.

이러한 연구모형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1)누구로부터 어떠한 종류의 학대를 어느정도 심하게 자주 경험하고 있는지, 2)학대의 발생요인들이 학대사건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3)학대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4) 학대발생요인들이 대처방식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 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이다. 통계청(1998)과 한국의 보건복지지표(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8)의 자료에 의한 총인구 45,093,000명 가운데 12-18세의 학생인구를 11.2%로, 비학생인구를 1.9%로 추정하여 모집단의 표본수를 약 1%로 책정한다면 청소년 학생인구는 약 48,000명이 비학생인구는 약 9,000명이 추출될 것이다. 위의 전국적 실태조사 57,000명의 1%에 해당하는 예비조사로서 연구대상자를 약 600명으로 선정하였다.

일반 청소년 집단으로서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중학교 1-3학년, 입시와 취업준비로 용이하지 않은 3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서울과 인천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였다. 이외에 표집과정에서 성별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남녀 수의 비율을 동일하도록 시도하였다. 요보호 청소년 집단은 청소년 보호시설(쉼터, 보호관찰소 등)과 근로 청소년회관의 협조로 연령을 고려하여 추출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및 기관으로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남녀공학 2, 남자 중학교 1, 여자 중학교 1), 일반계 고등학교 5개(남녀공학 3학교와 남자 고등학교 1, 여자 고등학교 1개)와 실업계 고등학교 2개(상업고 1, 공업고 1), 청소년 쉼터시설 1개, 보호관찰소 1개등이 대상자 표본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방법

본 조사에 앞서 1999년 10월 25일-27일에 초등학교 5명, 중고생 7명에게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생의 응답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예: 교부간의 갈등, 성학대에 관한 서술 등)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고 대응방식에 대한 조

사자의 설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는 점 등이 본 조사에 반영되었다.

선정된 학교에 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내용의 설명과 함께 질문지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학대에 관한 조사는 민감한 주제임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학교나 기관의 익명성을 여러 단계에서 강조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조사원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및 학부졸업생, 아동복지학과 대학원생들로서 전수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다. 조사는 1999년 11월 1일-11월 22일까지 총 1,000부를 발송하여 614부가 회수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식(self-report)의 질문지 조사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방임등의 포괄적인 학대의 조작적 정의들이 아동에게 적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조로 하였으며 이 가운데 학대의 개념적 정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 장화정(1998)의 아동학대 평가척도를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학대 종류별로 경미한 학대에서부터 심한 학대에 이르기까지 각각 10가지 상황을 진술하고 그 빈도를 4점 척도로 분류하였다. 나아가 누구로부터 학대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부모, 형제, 학교선생님, 친구, 선배 등 9항목으로 가해자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청소년 주변의 부모, 공부, 주거환경등의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에 관하여 이평숙(1984)의 스트레스 척도는 이종복, 이배근(1997)이 조정했던 10항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자가 만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10항목 가운데 요인분석한 후 관련이 적은 4항목들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청소년 개인에 관한 성향(적극적 혹은 소극적)과 부모와의 관계(우호적, 적대적)를 측정하였다.

학대의 대응방식에 관한 문항들은 연구자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학대발생 후의 심리적 반응에 관한 질문과 함께 어떻게 행동으로 대처했는지, 도움을 구한 대상과 그 결과,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 친구에 대한 도움의 태도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상의 질문내용들은 아동학대 전문위원들과 학대사업에 관여하는 실무지도자들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안면타당도가 높다고 하겠다.

IV.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전체 614명 중 여자 청소년(315명)이 남자 청소년(299명) 보다 약간 더 많다. 학령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보면 초등학생이 214명(35.1%), 중학생 139명이(22.8%), 고등학생이 256명(42.1%)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182명(29.9%), 실업고등학교 학생이 74명(12.2%)을 이루었다. 가족의 구성원의 수에서 4인 가족이 312명(52.3%)으로 가장 많으며 5인 가족이 124명(20.8%)으로 차선을 차지한다.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양친가정 496명(81.2%)이 주를 이루며 편부모가정이나 재혼가정은 98명(17.1%)이다. 가족의 수입은 100만원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47명(45.9%)으로 가장 많은 범주에 속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인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살펴 결과, 고등학교 졸업이 부, 모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직업으로 판매직과 사무직 종사가 344명(59.9%)으로 주를 이루었다.

표 1 : 사회인구학적 특성

		빈도(%)			빈도(%)	
					아버지	어머니
성별	남	299(48.70)	부모 의 학력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21(7.5)	42(7.8)
	여	315(51.30)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	214(35.10)				
	중학교	139(22.80)				
	일반고	182(29.90)				
	실업고	74(12.20)				
가족수	0-3명	113(19.00)	직업	무직 생산직 판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기타	15(2.80)	308(56.60)
	4-5명	436(73.10)				
	6명이상	47(7.90)				
가족형태	양친가정	496(81.20)				
	재혼가정	33(5.40)				
	편부모가정	66(10.80)				
	기타	16(2.70)				
수입	100만원이하	123(22.90)				
		247(25.90)				
		168(31.20)				

2. 학대의 유형별 실태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를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 당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1) 학대의 종류별 경험 실태

표 2는 학대의 구체적 사례를 학대의 종류와 빈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조사대상의 청소년이 가장 많이 당하는 신체적 학대의 경험은 심한 학대로 분류되는 막대기, 혁대등의 도구로 가해하는 것이다. 21.2%의 청소년이 한 달에 1-4회 이러한 학대를 당하며 4.8%는 한 달에 5회 이상 반복되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한 학대로서 매로 엉덩이를 맞는다든지(19.5%), 손으로 뺨을 맞는 경우(16.7%)가 한 달에 1-4회 발생하였다. 한 달에 1회 이상 온 몸을 마구 두들겨 맞는 청소년도 10.0%에 이르고 있다. 정서적 학대의 경험은 사사건건 잘못했다고 미움을 받은 경우(20.0%), 특히 소리지름(20.5%), 병신, 멍청이 등의 욕을 들음 (19.0%)등의 경우가 가장 많다. 아울러 13.4%의 청소년이 “우리 집의 골치덩이”라는 인격 모독적 비난을 한 달에 1-4회, 4.1%의 청소년이 5회 이상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밖에 쫓겨난 경험도 7.4%의 청소년이 한 달에 1회 이상 당하였다.

방임의 경우 조사대상 중 17.6%의 청소년이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한 일을 한 달에 1-4회 경험했으며 2.3%의 청소년은 이를 한 달에 5회 이상 경험하였다. 또한 10.7%의 청소년이 한 달에 1-4회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5.4%는 5회 이상 과중한 가사부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3%의 청소년은 밤늦게 귀가해도 이유를 묻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9.3%의 청소년이 몇 일씩 보호자 없이 지낸 경험을 한 달에 1회 이상 경험하였다. 성적 학대의 경우 12.7%의 청소년은 음흉한 시선을 받은 적이 있으며 8.8%는 강제로 음란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본 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에도 ‘타인이 강제로 몸을 더듬는다’(7.5%), ‘자위행위를 보인다’(5.4%)등의 성적 학대도 경험하였다. 한편 이러한 성적 학대의 희생자들이 여자 청소년에게 주로 발생한다고 보면 학대의 희생자의 비율을 남자와 여자를 합한 전체 614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점에서 실제의 성적 학대발생률은 더 높다고 하겠다.

표 2 : 학대의 종류별 구체적 사례 빈도

		학대분항	빈도(월기준)			무응답
			없다	1-4회	5회이상	
신체적 학대	경한 학대	베로 엉덩이를 맞음	463(76.4)	118(19.5)	25(4.2)	8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음	515(85.0)	68(11.2)	23(3.8)	8
		주위에있는 물건을 던짐	531(87.9)	60(9.9)	13(2.1)	10
		손으로 뺨을 맞음	546(81.5)	43(16.7)	15(1.8)	8
		상습적으로 꼬집힌다	494(90.4)	101(7.1)	11(2.5)	10
	심한 학대	박대기, 혈대, 빗자루로 맞음	447(74.0)	128(21.2)	29(4.8)	10
		온몸을 미구 두들겨 맞음	545(90.1)	50(8.3)	10(1.7)	9
		담배불로 지짐	593(98.3)	9(1.5)	1(0.2)	11
		칼, 송곳등의 흉기로 위협당함	586(97.0)	16(2.6)	2(0.4)	10
		칼, 송곳등의 흉기로 상처입음	589(97.4)	15(2.5)	1(0.2)	9
정서적 학대	경한 학대	사사건건 잘못했다고 미움받음	484(80.0)	90(14.9)	31(5.1)	9
		특하면 소리지름	480(79.5)	95(15.7)	29(4.8)	10
		병신, 멍청이 같다고 욕함	488(81.1)	84(14.0)	30(5.0)	12
		학교 그만두고 집안일하라고함	532(87.9)	53(8.8)	20(3.3)	9
		형 또는 동생만 좋아함	536(88.6)	52(8.6)	17(2.8)	9
	심한 학대	나에게 “우리집의 골치덩이”라함	498(82.5)	81(13.4)	25(4.1)	10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망가트림	571(94.7)	22(3.6)	10(1.7)	11
		나에게 온 전화를 끊어버림	578(95.7)	15(2.5)	11(1.8)	10
		문 밖으로 내쫓음	559(92.7)	36(6.0)	8(1.4)	11
		다락방 또는 장롱 속에 가둠	593(98.5)	7(1.2)	2(0.3)	0
방임	경한 방임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함	482(80.1)	106(17.6)	14(2.3)	12
		도움을 청할 때 무시당함	561(93.7)	30(5.0)	8(1.3)	15
		나와 대화를 나누지 않음	553(92.0)	36(6.0)	12(2.0)	13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음	542(90.3)	36(6.0)	22(3.7)	14
		밤 늦게 귀가해도 내버려둠	537(89.6)	48(8.0)	13(2.3)	15
	심한 방임	집안일을 도맡아 함	501(83.9)	64(10.7)	32(5.4)	17
		몇일씩 보호자 없이 지냄	543(90.7)	41(6.8)	15(2.5)	15
		내가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음	573(95.7)	19(3.2)	7(1.2)	15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내버려둠	588(98.2)	7(1.2)	4(0.7)	15
		이유없이 결석해도 상관안함	580(96.7)	12(2.0)	8(1.4)	14
성적 학대	경한 학대	성적인 농담을 강제로 들음	550(92.0)	48(8.0)		16
		음흉한 시선을 받은적 있음	522(87.3)	76(12.7)		16
		내몸을 더듬은 적이 있음	553(92.5)	45(7.5)		16
		내옷을 강제로 벗김	584(97.7)	14(2.3)		16
		음란한 사진, 비디오 등을 보여줌	546(91.2)	53(8.8)		15
	심한 학대	내몸에 성기를 비빔	578(96.7)	20(3.3)		16
		내앞에서 자위행위를 함	566(94.6)	32(5.4)		16
		타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	585(98.2)	11(1.8)		18
		손가락 등을 성기에 넣음	585(97.7)	14(2.3)		15
		강제로 성행위를 함	590(98.7)	8(1.3)		16

2) 학대행위자에 따른 학대의 실태

학대를 누구로부터 당하였는지에 따라 청소년이 경험한 학대의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3 : 학대행위자에 따른 학대의 종류별 실태

학대 실태 행위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경		중		경		중		경		중		경	중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있음	있음
부	4 (1.43)	1 (0.36)	3 (1.07)	1 (0.36)	8 (3.33)	2 (0.83)	2 (0.83)	1 (0.42)	34 (5.65)	11 (1.82)	7 (1.17)	7 (1.17)	1 (0.91)	0 (0.00)
모	7 (2.50)	2 (0.72)	1 (0.36)	0 (0.00)	26 (10.83)	6 (2.5)	2 (0.83)	0 (0.00)	15 (2.49)	4 (0.66)	5 (0.83)	1 (0.17)	1 (0.91)	0 (0.00)
형제	5 (1.79)	0 (0.00)	1 (0.36)	0 (0.00)	6 (2.50)	3 (6.25)	1 (0.4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82)	0 (0.00)
친척	0 (0.00)	2 (0.72)	0 (0.00)	0 (0.00)	2 (0.83)	2 (0.83)	0 (0.00)	1 (0.4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이웃	4 (1.43)	4 (1.43)	0 (1.0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6 (23.64)	1 (1.91)
학교 교사	12 (4.29)	5 (1.79)	3 (1.07)	0 (0.00)	6 (2.50)	2 (0.83)	1 (0.4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5 (4.55)	1 (0.91)
친구	7 (2.50)	1 (0.36)	3 (1.0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0 (9.09)	6 (5.45)
선배	3 (1.07)	0 (0.00)	4 (1.43)	1 (0.36)	9 (3.75)	0 (0.00)	1 (0.4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타	0 (0.00)	0 (0.00)	0 (0.00)	0 (0.00)	5 (2.08)	1 (0.42)	2 (0.8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우선 신체적 학대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학대를 학교교사로부터 가장 많이 당하였고 어머니나 선배가 그 다음을 이룬다. 약 20%의 청소년이 경한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4.29%가 한 달에 1-4회의 경한 학대를 교사로부터, 2.50%가 어머니나 선배로부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5회 이상의 경한 학대의 경험에서도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가 가장 많다. 심한 학대의 경우 약 6%의 청소년이 아버지, 교사, 선배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대의 정도에 있어 부모의 성별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경한 학대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심한 학대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

비교적 경한 정서적 학대를 어머니로부터 가장 많이 당하였고 아버지, 형제나

교사가 그 다음을 이룬다. 경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약 29% 가운데 10.83%가 한 달에 1-4회의 경한 학대를 어머니부터, 3.33%가 아버지, 2.50%가 형제나 교사부터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의 경한 학대의 경우에도 어머니가 가장 많다. 심한 학대의 경우, 약 5%의 청소년이 아버지(1.25%)나 어머니(0.83%)로부터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이상의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방임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학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부모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고 다른 가해자와의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응답 청소년들은 비교적 아버지로부터 방임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양육의 1차적 책임을 갖는 성역할 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관심의 요구와 더불어 가정내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성적 학대는 이웃(23.64%)으로부터 가장 많이 당하였고 친구로부터도 경한 성적학대(9.09%)와 심한 성적인 학대(5.45%)를 경험하였다.

3. 학대 관련 요인 및 결과

학대의 경험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 연령집단,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 청소년 자신의 사회심리적 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들과 연관지어 살펴 보려고 한다. 표 4는 학대의 종류에 따른 위 요인들의 학대의 경중 및 발생빈도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교차분석을 통한 통계적 집점 결과를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학대경험($\chi^2=.308$, $p>.05$)과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학대경험($\chi^2=.000$,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집단에 따른 학대경험은 차이가 있었다($\chi^2=7.266$, $p<.01$). 초등학교 연령의 청소년이 전반적으로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였는데 경하거나 심한 신체적 학대를 타 연령집단보다 가장 많이 당하였고(6.15%) 심한 정서적 학대(1.16%), 심한 방임(1.34%)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은 타 연령집단보다 경한 정서적 학대(4.48%)와 경한 방임(5.52%)의 경우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경우 가벼운 정도에서는 연령집단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심한 정도에서 중학교 연령집단이 약간 더 많았다.

가족스트레스도 학대의 경험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6.465$, $p<.001$). 가족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경한 정도의 학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를 나열하면 신체적 학대

의 7.47%, 정서적 학대의 9.47%, 방임의 9.16%, 성적 학대의 7.23%를 구성하는 청소년들이 각각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로서 스트레스가 적은 청소년보다 더 많이 학대를 경험하였다.

표 4 : 학대관련 요인 및 결과

학대 실태 관련 요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χ^2
		경		중		경		중		경		중		경	중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1-4회	5회 이상	있음	있음	
성별	남	11 (1.82)	6 (0.99)	1 (0.17)	0 (0.00)	26 (4.29)	11 (1.82)	6 (0.99)	2 (0.33)	34 (5.65)	11 (1.82)	7 (1.17)	7 (1.17)	10 (1.80)	3 (0.54)	3.08
	여	33 (5.45)	9 (1.49)	15 (2.48)	1 (0.17)	27 (4.46)	6 (0.99)	4 (0.66)	0 (0.00)	15 (2.49)	4 (0.66)	5 (0.83)	1 (0.17)	40 (7.19)	5 (0.90)	
연령 집단	초	22 (3.65)	6 (1.00)	8 (1.33)	1 (0.17)	22 (3.65)	4 (0.66)	5 (0.83)	2 (0.33)	11 (1.84)	3 (0.50)	4 (0.67)	4 (0.67)	15 (2.72)	0 (0.00)	7.266**
	중	10 (1.66)	3 (0.50)	7 (1.16)	0 (0.00)	10 (1.66)	6 (0.99)	1 (0.17)	0 (0.00)	11 (1.84)	6 (1.01)	2 (0.34)	2 (0.34)	17 (3.08)	5 (0.84)	
	고	11 (1.83)	6 (1.00)	1 (0.17)	1 (0.17)	20 (3.32)	7 (1.16)	4 (0.66)	0 (0.00)	27 (4.51)	6 (1.01)	1 (0.17)	1 (0.17)	17 (3.08)	3 (0.54)	
가족 스트레스	적다	9 (1.50)	5 (0.83)	9 (1.50)	1 (0.17)	9 (1.50)	3 (0.50)	4 (0.66)	1 (0.17)	7 (1.17)	2 (0.34)	4 (0.66)	4 (0.66)	9 (1.63)	3 (0.54)	16.465***
	많다	35 (5.81)	10 (1.66)	7 (1.16)	0 (0.00)	43 (7.14)	14 (2.33)	5 (0.83)	1 (0.17)	42 (7.00)	13 (2.16)	10 (1.67)	3 (0.50)	40 (7.23)	5 (0.90)	
사회 심리적 태도	적극적	31 (5.13)	12 (1.98)	9 (1.49)	1 (0.17)	38 (6.29)	11 (1.82)	7 (1.16)	1 (0.17)	36 (5.99)	10 (1.66)	7 (1.17)	5 (0.83)	35 (6.31)	6 (1.08)	14.402***
	소극적	13 (2.15)	11 (0.50)	7 (1.16)	0 (0.00)	13 (2.15)	6 (0.99)	2 (0.33)	1 (0.17)	13 (2.16)	5 (0.84)	4 (0.67)	3 (0.50)	15 (2.70)	2 (0.36)	
부모와의 관계	적대적	13 (2.16)	3 (0.50)	9 (1.50)	1 (0.17)	17 (2.83)	5 (0.83)	3 (0.50)	2 (0.33)	14 (2.34)	3 (0.50)	7 (1.17)	6 (1.01)	0 (0.00)	0 (0.00)	0.000
	우호적	31 (5.16)	12 (2.00)	7 (1.16)	0 (0.00)	34 (5.66)	12 (2.00)	6 (1.00)	0 (0.00)	35 (5.84)	12 (2.00)	5 (0.84)	1 (0.17)	0 (0.00)	0 (0.00)	

* p<.05, ** p<.01, *** p<.0001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태도 또한 학대의 경험에 다르게 영향을 미쳤다($\chi^2=14.402$, $p<.001$). 적극적인 태도의 청소년이 소극적인 청소년보다 학대의 종류 및 경중의 모든 경우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학대의 8.77%, 정서적 학대의 9.44%, 방임의 9.65%, 성적 학대의 7.39%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사회심리적 태도를 가졌으며 소극적인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적극적인 청소년의

경우 독립적 자기 주장, 반항적 태도, 행동화 경향이 보다 능동적으로 학대를 유발시킨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대에 대한 대처방식의 실태

청소년들 자신이 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대하여 정서적 반응, 자신과 친구에의 대응행동, 도움을 구하는 대상, 도움 요청 후의 효과,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들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 학대의 종류별 대처방식 실태

대처방식	항 목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정서적 반응	누우치고 반성	106(39.4)	56(25.2)	71(50.4)	20(22.7)
	자신의 증오	27(10.0)	37(16.7)	24(17.0)	16(18.2)
	자살욕구	20(7.4)	13(5.9)	1(0.7)	10(11.4)
	복수원함	71(26.4)	66(29.7)	15(10.6)	34(38.6)
	가출원함	45(16.7)	5(22.5)	30(21.3)	8(9.1)
자신에의 대응행동	그냥참음	187(71.1)	161(70.9)	110(71.4)	63(63.0)
	하소연	63(24.0)	54(23.8)	40(27.5)	27(27.0)
	적극적 도움청함	10(3.8)	12(5.3)	4(2.1)	10(10.0)
친구에의 대응행동	예기를 들어줌	116(25.0)	111(25.3)	121(31.6)	82(19.4)
	용기를 갖도록 격려	141(30.5)	142(32.3)	118(30.8)	61(14.5)
	도움을 청하도록 권유	56(12.1)	48(10.9)	33(8.6)	62(14.7)
	도움받을 곳을 찾음	78(16.9)	74(16.9)	53(13.8)	138(32.7)
	잘 모르겠다	71(15.4)	64(14.6)	58(15.1)	79(18.7)
도움을 구하는 대상	부/모	19(20.9)	13(18.1)	96(69.6)	15(31.9)
	친구	3(3.3)	2(2.8)	12(8.7)	1(2.1)
	학교교사	55(60.4)	49(68.1)	1(0.7)	20(42.6)
	상담기관	3(3.3)	3(4.2)	18(13.0)	2(4.3)
	기타	10(11.0)	5(6.9)	10(7.2)	9(19.1)
도움 요청후 효과	전혀 도움안됨	24(29.3)	22(31.0)	15(34.9)	16(40.0)
	한동안 위로가 됨	42(51.2)	43(60.6)	22(51.2)	15(37.5)
	학대의 재발안됨	15(18.3)	6(8.5)	6(14.0)	9(22.5)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창피해서	19(10.8)	16(10.1)	16(14.2)	21(31.8)
	보복이 두려워서	14(8.0)	13(8.2)	4(3.5)	3(4.5)
	도움이 되지않을것같아	124(70.5)	106(67.1)	78(69.0)	29(43.9)
	어디에도움을구할지몰라	19(10.8)	22(13.9)	15(13.3)	13(19.7)

학대 후 정서적 반응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 후에는 반성한 경우(39.45%)가, 정서적 학대 후에는 복수를 원하는 경우(29.7%)가 각각 가장 많다는 점이 다르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뉘우치고 반성하는 학대 후의 정서적 반응이 타 종류의 학대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보였는데 이에 관하여 신체적 학대를 훈육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한편 성적 학대는 이와 달리 복수를 원하는 경우(38.6%)가 가장 많았다.

학대에 대한 청소년 자신의 대응행동에서 신체적, 정서적, 방임, 성적인 학대의 종류 모두 비슷한 반응행동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은 피학대 후 그냥 참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하소연한 경우가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친구에 대한 학대에의 대처행동에 관하여 '얘기를 들어준다'와 '용기를 갖도록 격려한다'는 반응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서 약 30% 내외의 중요한 대처반응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에서는 도움 받을 곳을 찾겠다는 노력이 32.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도움을 구하는 대상에 있어서 방임을 제외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경우 학교교사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구했고 그 다음이 부모, 기타의 순서였다. 특히 신체적 학대에서의 학교교사를 도움의 대상으로 여긴 경우는 60.4%, 정서적인 경우는 68.1%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대의 예방이나 치료에서 학교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게 되며 아울러 상담기관에 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조사의 결과는 상담전달체계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에 관한 홍보나 교육활동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방임에 관하여는 부모에 관한 사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결요청의 대상도 부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후의 효과에 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우에 동일한 순위의 결과를 나타냈다. '한동안 위로가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 경우도 약 30%를 각각 차지하였다. 성적 학대의 경우에는 '도움이 전혀 안되었다'는 결과가 40.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에서 약 70%를 차지하였고 성학대에서는 43.9%를 구성하였다. '어디에 도움을 구할 지 몰라서'의 경우가 성학대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대 관여 사업의 전개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으로 홍보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입증되는 실제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창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았는데 임상적 개입에서 자존감의 손상의 문제와 비밀보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5. 학대에의 대처방식 관련 요인 및 결과⁸⁾

학대가해자에 따른 대처방식의 6가지의 사항-정서적 반응, 대응행동, 도움을 구하는 대상, 도움 요청 후 효과,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친구에 대한 학대 대처방식-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정서적 반응에 대하여 학대의 종류별로 상술하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학대별 정서적 대처방식이 성별, 학교 연령집단, 그리고 청소년 개인의 사회심리적 태도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1) 학대 가해자에 따른 정서적 반응의 대처양식

학대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학대를 당한 후의 심정을 학대의 종류별로 요약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생략하며 대신 학대가해자에 따른 분류를 가정내의 학대와 가정외의 학대라는 학대발생환경으로 구분하여 정서적 반응과 관련이 있는 지 ANOVA 검정결과를 제시할 때 보완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표 6 : 학대가해자에 따른 정서적 반응의 대처방식

학대 가해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반성	증오 자살충동	복수 가출충동	반성	증오 자살충동	복수 가출충동	반성	증오 자살충동	복수 가출충동
부	10(3.83)	3(1.15)	11(4.22)	8(3.64)	7(3.18)	19(8.63)	0(0.00)	2(2.60)	1(1.30)
모	26(9.96)	7(2.69)	13(4.99)	33(15.00)	23(10.47)	23(10.46)	0(0.00)	1(1.30)	0(0.00)
형제	7(2.68)	5(1.92)	15(5.74)	9(4.09)	6(2.72)	16(7.27)	0(0.00)	0(0.00)	0(0.00)
친척	1(0.38)	0(0.00)	5(1.91)	0(0.00)	1(0.45)	5(2.27)	0(0.00)	1(1.30)	0(0.00)
이웃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2.60)	0(0.00)
교사	38(13.23)	17(6.51)	30(11.5)	3(1.36)	6(2.72)	23(10.46)	1(1.30)	0(0.00)	0(0.00)
친구	9(3.45)	7(2.69)	16(6.13)	0(0.00)	0(0.00)	0(0.00)	9(11.69)	5(6.50)	11(14.29)
선배	5(1.92)	4(1.53)	17(6.52)	1(0.45)	3(1.36)	7(3.18)	1(1.30)	4(5.19)	1(1.30)
기타	5(1.92)	2(0.77)	8(3.07)	8(3.64)	5(2.27)	13(5.91)	2(2.60)	10(12.98)	17(22.10)

8) 자세한 분석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앞의 대처방식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다 심화시킬 내용만을 기술하였다.

표 7에서 제시하듯 각각의 독립변수의 영향에 관하여 학대환경이 학대를 발생시킨 빈도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나($F=10.977$, $p=.001$) 정서적 반응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563$, $p=.453$).

표 7 : 신체적 학대에서의 가해발생환경 및 정서적 반응의 영향

변인	평균제곱	자유도	F	유의도
학대환경	975.081	1	10.977	.001 ^{***}
정서적 반응	50.015	2	.563	.453
상호작용	3848.740	2	43.327	.000 ^{***}

* $p<.05$, ** $p<.01$, *** $p<.0001$

즉 학대가 가정내의 부모나 형제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와 교사, 선배동 학교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의 학대는 다르게 발생되었다. 정서적 반응은 반성하는 집단, 증오하거나 자살충동을 느낀 집단, 복수하거나 가출을 하려는 집단간의 학대발생의 빈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해발생환경 및 정서적 반응의 학대발생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3.327$, $p=.000$). 다시 말해 학대가 가정내 혹은 가정외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정서적 반응이 다르게 학대의 발생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표 6에서 제시하듯 어머니와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반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복수하거나 가출을 원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 표 8에서 제시하듯 가해발생환경과 정서적 반응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에서의 가정 밖에서의 가해자들에 의한 가해환경 집단 사이에 학대 발생의 차이를 보였으며($F=43.853$, $p=.000$) 학대 후의 반성, 증오나 자살충동, 그리고 복수 혹은 가출을 원하는 정서적 반응 또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7.405$, $p=.007$). 또한 두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또한 유의확률 0.05 수준을 만족시켜 학대가 발생한 가정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면 반성하는 경향이 더 강하며 가정외에서는 복수하거나 가출하려는 성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그 예로서 표 8의 결과에서도 제시하듯 가정 내 어머니에 의한 정서적 학대에는 청소년들이 반성하는 경우가 많았으나(15.0%) 가정 밖의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청소년들은 반성하기(2.72%) 보다 복수하거나 가출하려는 충동(10.46%)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표 8 : 정서적 학대에서의 가해발생환경 및 정서적 반응의 영향

변인	평균제곱	자유도	F	유의도
학대환경	7009.109	1	43.853	.000 ^{***}
정서적 반응	1183.610	2	7.405	.007 ^{**}
상호작용	575.728	2	3.902	.048 [*]

*p<.05, **p<.01, ***p<.0001

성적 학대의 경우 표 9의 결과처럼 가해발생환경은 정서적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외에서의 가해자들에 의한 학대환경의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F=128.244$, $p=.000$) 대상 청소년의 경우 성적 학대가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후의 반성, 증오나 자살충동, 그리고 복수 혹은 가출을 원하는 정서적 반응도 학대 발생에 있어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냈다($F=38.970$, $p=.000$). 또한 두 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또한 유의확률 0.001 수준을 만족시켜 표 8의 결과에서처럼 가정내에서 드물게 발생된 학대의 경우 증오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5.60%) 반면 가정외에서의 성적 학대 후에는 복수하거나 가출하려는 성향(39.59%)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표 9 : 성적 학대에서의 가해발생환경 및 정서적 반응의 영향

변인	평균제곱	자유도	F	유의도
학대환경	17481.640	1	128.244	.000 ^{***}
정서적 반응	5267.600	2	38.970	.000 ^{***}
상호작용	4181.948	2	30.194	.000 ^{***}

*p<.05, **p<.01, ***p<.0001

2) 학대관련 요인들에 따른 정서적 반응의 대처방식 결과

학대 후 정서적 반응이 성, 연령, 사회심리적 태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한 빈도와 교차분석의 통계적 검정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었다.

표 10 : 학대관련 요인들과 학대 후 정서적 반응

학대 반응 관련 요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χ^2
		반성	증오 자살 충동	복수 가출 충동	반성	증오 자살 충동	복수 가출 충동	반성	증오 자살 충동	복수 가출 충동	반성	증오 자살 충동	복수 가출 충동	
성별	남	80 (29.74)	24 (8.93)	72 (26.77)	40 (18.02)	20 (9.01)	70 (31.54)	52 (36.88)	12 (8.51)	32 (22.69)	17 (19.32)	13 (14.77)	16 (18.18)	33.052***
	여	26 (9.67)	23 (8.55)	44 (16.36)	16 (7.21)	30 (13.51)	46 (20.72)	19 (13.48)	13 (9.22)	13 (9.22)	3 (3.41)	13 (14.77)	26 (29.54)	
연령집단	초	49 (18.35)	16 (5.99)	40 (14.98)	21 (9.55)	21 (9.55)	38 (17.27)	7 (8.05)	10 (11.5)	9 (10.35)	7 (8.05)	10 (11.5)	9 (10.35)	8.009*
	중	14 (5.24)	13 (4.87)	34 (12.74)	16 (7.27)	6 (2.73)	37 (16.82)	7 (8.05)	4 (4.60)	12 (13.79)	7 (8.05)	4 (4.60)	12 (13.79)	
	고	42 (15.73)	18 (6.74)	41 (15.34)	18 (8.18)	23 (10.45)	40 (18.19)	5 (5.75)	12 (13.8)	21 (23.14)	5 (5.75)	12 (13.8)	21 (23.14)	
사회 심리적 태도	적극적	91 (33.83)	31 (11.52)	77 (28.63)	48 (21.82)	35 (15.91)	79 (35.91)	58 (41.13)	14 (10.00)	27 (12.7)	13 (15.66)	20 (24.1)	32 (38.55)	9.449*
	소극적	15 (5.58)	16 (5.94)	39 (14.49)	8 (3.64)	14 (6.37)	36 (16.36)	13 (9.29)	20 (24.1)	17 (12.14)	4 (4.82)	5 (6.02)	9 (10.84)	

* $p<.05$, ** $p<.01$, *** $p<.0001$

학대 후 정서적 반응양식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33.052$, $p<.0001$). 전반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반성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자 청소년은 복수를 원하거나 가출을 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서적, 성적 학대의 경우 복수나 가출 이외에 여자 청소년은 자신을 증오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점이 남자 청소년의 반응과 다른 점이다.

학교연령별 집단과 정서적인 반응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009$, $p<.05$). 초등학생의 경우 주로 반성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정서적 학대의 복수를 주로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성적 학대와 방임의 주요 반응양식이었다. 중학생 집단은 두드러지게 모든 학대의 경우 복수나 가출이 우선적인 정서적 반응이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도 유사하게 신체적 학대를 제외하고 복수나 가출이 가장 많았다.

사회심리적 태도에 따라 정서적 반응의 대처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chi^2=9.449$, $p<.05$).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뉘우치고 반성하는 반응이 성학대를 제외한 학대의 종류에서 주된 정서적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와 대조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띄는 청소년의 경우 복수나 가해를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보였다. 특히 소극적인 청소년의 경우 가해를 원하는 반응은 성적 학대에서의 복수를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모두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반응양식이었다.

I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학대를 유해환경이라는 생태학적 견해에 따라 정의하고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의 포괄적 영역에 걸쳐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의 결과요약 및 이에 따른 제언은 아래와 같다.

1. 결과 요약

1) 학대의 유형별 실태

응답 청소년의 학대경험은 학대의 종류와 학대의 경중과 빈도에 따라서, 그리고 학대 가해자에 따라서 분류, 조사되었다. 학대경험에 관하여 청소년들은 경한 신체적 학대로서 때로 엉덩이를 맞음(27.9%), 손으로 뺨을 맞음(18.5%)의 경우들이 한 달에 1회 이상 발생하였다. 심한 학대에 속하는 막대기, 혁대등의 도구로 맞는 일이 21.1%의 청소년에게 한 달에 1-4회, 4.8%의 청소년에게 5회 이상 일어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온 몸을 마구 두들겨 맞는 청소년도 10%에 이른다.

경한 정서적 학대로서 ‘특하면 소리 지른다’(20.5%), ‘사사건건 잘못했다고 미움 받는다’(20.0%), ‘병신, 멍청이 같다고 욕한다’(19.0%)의 경우들이 한 달에 1-4회 이상 일어났다. 심한 정서적 학대로서 13.4%의 청소년이 “우리집의 골치덩이”라는 모욕적 비난을 한 달에 1-4회 들었으며 4.1%는 5회 이상 경험하였다. 7.4%의 청소년은 문 밖에 쫓겨난 경험을 한 달에 1회 이상 당하였다.

경한 방임의 경우, 17.6%의 청소년이 한 달에 1-4회 약속을 잊거나 무관심한 일을 당하였고 2.3%는 5회 이상 이를 경험하였다. 심한 방임으로 10.7%의 청소년이 집안 일을 도맡아 한 달에 1-4회 했으며, 5.4%가 5회 이상 당하였다. 이외에 한 달에 1회 이상 밤늦은 귀가에도 이유를 묻지 않고 방치되거나(10.3%), 몇 일씩 보호자 없이 지내는(9.3%)의 경우도 나타났다.

경한 성적 학대로서 12.7%의 청소년들은 음흉한 시선을 받았고, 8.8%는 강제로 음란 사진이나 비디오 등을 보았으며, 타인이 강제로 몸을 더듬는 경우도 7.5%의 청소년에게 발생하였다. 심한 성적 학대로서 자위행위를 보이거나(5.4%) 타인이 몸에 성기를 비비는(3.3%) 경우들을 당하였다.

누구로부터 학대를 주로 받았는가를 학대의 종류에 따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의 경우 학교교사와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학대의 경우 어머니와 선배로부터, 성적 학대의 경우 이웃으로부터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학대가 가정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도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2) 학대 관련 요인 및 결과

학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성, 학교의 연령집단, 가족 스트레스, 사회심리적인 태도, 부모와의 관계등이 청소년의 학대 경험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다. 성별 및 부모와의 관계는 학대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연령집단, 가족스트레스, 사회심리적 태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의 연령집단에 따른 학대경험에서 초등학교 청소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의 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연령집단은 경한 정서적 학대와 경한 방임을 더 많이 당하였다. 성적 학대에서는 경한 학대의 경우 연령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심한 성적 학대의 경우 중학생이 가장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스트레스에 따른 학대경험에 관하여 가족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이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한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및 방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태도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성적 학대 모두와 학대의 경중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태도의 청소년이 소극적인 청소년보다 학대를 더 자주 경험하였다.

3) 학대예의 대처방식의 실태

학대가 발생한 이후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대처반응에 관하여 학대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거나 복수를 원하는 경우가 주요 반응이었다. 자신의 학대당한 후 대응행동은 모든 학대의 종류에서 '그냥 참는다'의 반응행동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경우는 '하소연한다'는 반응이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행동방식은 드물게 나타났다. 학대를 당한 친구에 대한 대처방식으로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우 애기를 들어주거나 용기를 갖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대처반응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에서는 도움 받을 곳을 찾겠다는 대응이 가장 많았다.

도움을 구하는 대상에 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 물었을 때 방임을 제외한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경우 모두 학교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부모, 기타의 순서였다. 따라서 학대의 예방 및 치료에서 학교교사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학교의 피학대 청소년의 도움체계로서의 지속적 개입이 요구된다. 아울러 상담기관에의 비요청의 결과는 상담전달체계의 보다 적극적인 학대에 관한 홍보나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대 발생 후 도움을 요청한 후의 효과에 관하여 성적 학대의 경우에서는 ‘도움이 전혀 안되었다’는 결과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우 ‘한동안 위로가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혀 도움이 안된 경우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어디에 도움을 구할 지 몰라서’의 경우가 성학대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학대 전개사업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교육면에서도 효과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성학대의 경우 ‘창피해서’라는 지적인 개입시 자존감 손상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내용임을 시사하였다.

4) 학대에의 대처방식 관련요인 및 결과

위의 학대에의 대처방식의 요인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정서적 반응에 관하여 학대의 종류별로 가정내와 가정밖의 두 학대환경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에서 가해발생환경과 학대후 정서적 반응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어머니와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반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복수하거나 가출을 원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정서적 학대에서도 유의한 관계성을 보였으며 어머니등에 의해 가정내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면 반성하는 경향을 보였고 가정외의 학대에서는 복수하거나 가출하려는 성향이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성적 학대의 경우 가정내의 드물게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증오 또는 자살 충동을 느꼈으나 가정외의 성적 학대는 복수나 가출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한편 학대후 정서적 반응이 성별, 학교 연령집단,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정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있어 학대 후 남자 청소년은 반성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복

수를 원하였다. 여자 청소년은 복수를 원하거나 가출을 원하였는데 특히 정서적, 성적 학대의 경우 여자 청소년은 자신을 증오하거나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점이 남자 청소년의 반응과 달랐다. 학교연령별 정서적 반응에서 초등학생 청소년은 주로 반성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중학생 집단은 모든 학대의 종류에서 복수나 가출의 충동을 나타냈으며 고등학생 집단도 유사하게 신체적 학대를 제외하고 복수나 가출이 가장 많았다. 사회심리적 태도면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청소년은 성학대를 제외한 학대의 종류들에서 반성하는 반응이 주된 정서적 대처방식으로 나타났다. 소극적인 태도를 띄는 청소년의 경우 복수나 가출을 원하는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보였다.

2. 제 언

위의 연구 결과들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학대방지를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에 대한 학대의 명료한 개념규정과 대책은 청소년의 발달기의 독특성을 배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유해환경으로서의 학대에 대한 규정은 세부적인 적용을 하기에 미흡하다. 연령의 범주가 유사한 아동복지법의 학대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연령집단 내의 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식이 차이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학대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로 세부적인 청소년 학대 개념으로부터의 발전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에 관한 대책은 생태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 영역이 가정뿐 아니라 학교,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연구의 결과에서처럼 학대 가해자는 가족내에서의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학교교사나 선배, 친구, 이웃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조사 결과 가해자에 따른 피학대자의 정서적 반응에서의 차별적 현상은 학대에의 개입에서 개별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반영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개별적 환경의 이해는 가해자의 종류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 연령, 가족스트레스, 부모와의 관계, 사회심리적태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파악되어 임상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관련 문제 청소년에 대한 개입방안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개개의 문제현상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문제해결을 요하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많은 청소년들이 학

대를 당한 후 ‘복수하고 싶다’라든가 ‘가출하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인 점은 학대가 폭력이나 비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들은 학대를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들이 제공하는 악순환의 연결과정 속에서 이해되어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개입간의 긴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위에서 제시한 대책이나 개입방안을 실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학대방지 전달체계의 구성 및 확충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학대에의 대처방식에 관한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학대발생 후 어디에 도움을 구할 지 잘 모르거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원조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많은 경우 부모나 학교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의 원조체계 또한 이들 학대가해자들에 의존되어 있어 도움을 호소할 만한 상담 전문기관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처럼 현재 청소년이 기존의 상담기관에 의존하는 경우는 본 조사에서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 전달체계의 확보가 시급하며 이러한 학대방지 전달체계는 청소년의 개별화된 요구에 부응하고 이용대상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와 민주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청소년이 건전하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필요하다. 학대의 방지는 무엇보다 예방적 차원이 중요하며 청소년의 발달에 1차적 책임을 감당하는 가정이나 학교내에서 의사소통이 민주적으로 형성되어야 함은 다시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학대에 관한 인식을 재구성하고 학대발생에 대한 공동적 책임의식을 각성하는 부모교육이나 청소년의 또래지킴이의 구성, 그리고 이를 위한 대상별 교육매체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고복자(1987). 아동구타와 발생률 조사. 정신건강연구. 제6호 pp. 66-81.
- 김재엽(1998).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와 문제점, 제19회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
- 김민정(1998). 여학생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1996). 청소년과 폭력,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종합보고서.
- 김유숙(1998). 가정폭력과 가족치료, 여성학논총, 제13권.
- 김준호(1996).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 보고서 96-1,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김준호(1997). 학교주변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근혜(1999).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동현(1994). 아동학대의 범위, 아동학대예방 대책방안, 제 12회 한국아동학대 예방 협회세미나 자료집.
- 양윤선(1999). 청소년 유해환경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염영옥(1998). 폭력청소년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한 REBT 집단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숙(1989).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프로그램, 사회복지, 겨울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이종복·이배근(1997).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서울: 홍익제.
- 이춘화(2000). 청소년폭력 가해자와 가해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형진(1991). 힘차고 유능한 청소년, 청소년 시범활동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서울: 체육청소년부.
- 장화정(1998). 아동학대 평가 척도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주영희(1984).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봄호.
- 최자은(1998).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8). 한국의 사회지표.
- 한경혜(1998). 가정내 세대간 폭력과 청소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어린이 성폭행 예방과 대책. 한국성폭력상담소 교육자료.
- 홍강의·강병구·곽영숙(1998a). 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가정 외 아동 성학대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2).
- _____ (1998b). 의사들의 보고에 의한 근친간 아동 성학대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2)
-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with Reinforcement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Vol(81), pp. 165-176.
- Curtis.(1963). Violence breeds violence, perhap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pp. 386-387.
- Herzberger, S. D.(1996). *Violence within the family: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Boulder: Westview Press.

-
- U. W.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1984). *The Role of Law Enforcement in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BSTRACT

The Study on Abuse and Coping Style Among Adolescents in Korea

Yang, Shim-Young*

This study examined adolescent abuse as an ecological aspect based on the Adolescents' Protection Law(1999). Following a study model on abuse and coping by this researcher, a self-help reported survey was given to 614 adolescents ranging from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the 2nd grade in the high school.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establis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1) the abuse type among adolescents indicated 46.5% experienced light physical abuse, 35.9% severe physical abuse, 59.5% light emotional abuse, 24.9% severe emotional abuse, 19.9% light neglect, 35.7% severe neglect, 29.0% light sexual abuse, and 8.7% experienced severe sexual abuse. 2) Influencing factors on abuse, gender and relationship with parents were not relevant. But, the elementary age group, high stressful adolescents in the family, and the active attitude group experienced more abuse. 3) In the coping style after abuse, adolescents tended to repent or to seek revenge as an emotional response, continue to endure this behavior or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their abused friends. They recognized primary helping persons such as teachers, but the effectiveness of this was found to bring about only temporary relief. The reason given for not asking for help was the feeling of uselessness. 4) Emotional response is different among gender, age group of adolescents, and psycho-social attitudes among them. Physical abuse has no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or other abuse environments or emotional response, but emotional and sexual abuse have relevance between them.

* Ewha Woman's University